

LUNATM SEC-OPS

통합 보안 운영 플랫폼

분산된 보안 솔루션을 통합 거버넌스로 관리하고,
반복 업무는 자동화해 관제와 대응에 집중하게 합니다.



급증하는 탐지와 보안 업무, 분절된 처리 흐름이 운영의 한계로 이어집니다.

복잡해지는 보안 환경, 파편화된 대응을 넘어 통합 보안 운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알림은 콘솔에

장비별 화면과 이벤트 목록

소명은 메일에

담당자별 요청과 회신

조치는 문서에

사후 정리와 보고 자료

근거는 곳곳에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운 이력

탐지로 끝나지 않고, 처리한 근거까지 남깁니다. LUNA SecOps는 탐지된 이벤트를 케이스·소명·조치 이력으로 이어 보안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탐지 이후의 처리 방식이 곧 보안 운영의 품질입니다.

같은 이벤트라도 운영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BEFORE · 장비 중심 운영

콘솔마다 따로 확인

분석가가 벤더별 콘솔을 일일이 열어
같은 이벤트를 중복 확인합니다.



AFTER · 포털 중심 운영

케이스 하나로 전환

탐지 데이터가 즉시 업무
단위로 묶여 처리 대상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메일·메신저로 재촉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 메일·메신저·
전화로 일일이 소명을 요청합니다.



시나리오 기반 자동 매핑

시나리오에 따라 담당자가
자동 지정되어(수동 지정
가능) 확인 시간이
줄어듭니다.

조치는 각자 메모로

조치 결과가 개인 문서나 수기
메모로 남아 나중에 누구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상태가 자동으로 누적

담당자·소명·조치 상태가
같은 흐름 안에서 실시간으로
남습니다.

감사 때마다 재구성

누가 언제 무엇을 처리했는지,
감사나 사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짜 맞춰야 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근거 제시

이벤트별 처리 이력이 이미
남아 있어 바로 꺼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더 많은 알림이 아니라, 보안 이벤트를 설명 가능한 처리 과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탐지된 이벤트를 넘어 보안운영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완성합니다.

탐지 데이터 처리에서 케이스 생성, 소명, 조치
상태 관리까지 이어지는 보안 워크플로우

단일 대시보드 기반 통합 모니터링

탐지자산의 운영 극대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합가시성 제공



탐지

이벤트를 업무 단위로 정리

여러 장비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 가능한 케이스로 묶고 담당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케이스

소명 요청과 회신을 연결

담당자는 로그인 없이 토큰 링크로 소명을 제출하고, 그 회신은 업무 이력에 남습니다.



소명

조치 상태와 근거를 추적

누가 확인했고 어떤 조치로 닫혔는지 한 흐름으로 남겨 사후 확인에 활용합니다.



리포트

리포트 빌더로 흐름을 마무리

일간·주간·월간 등 원하는 주기로 처리 현황을 동적 보고서로 자동 생성해, 포탈의 모든 기록이 리포트 하나로 남습니다.

LUNA SecOps는 여러 보안 시스템 데이터를 고객이 처리할 수 있는 보안포탈 업무로 바꿉니다.

고객사 관리자

조직 전체가 지금 얼마나
안전한지 요약 지표로 파악

테넌트 담당자

내 담당 범위의 소명 처리와
조치 결과 등록

SOC 분석가

실제 봐야 할 이벤트를
케이스로 전환·소명 요청

CISO·보안 책임자

리스크 추세와 감사·
컴플라이언스 대응 이력 확인

탐지 데이터를 업무의 언어로, 조치 이력을 운영의 자산으로

공통 데이터셋 수집부터 룰셋 매핑, 티켓·소명·신청서·시스템 연계까지 하나로 이어집니다



여러 벤더의 보안 데이터가 공통 데이터셋으로 모여 룰셋 매핑을 거쳐 티켓이 발행됩니다. 발행된 티켓은 소명 요청으로 처리하거나, 보안정책 신청서로 이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공수 절감

● 탐지 운영 공통 데이터셋 → 룰셋 매핑 → 티켓 발행 → 소명



● 보안 행정 신청서 → 결재 → 정책 적용 → 시스템 연계



특정 벤더에 묶이지 않는 폭넓은 연동

Splunk, Stellar Cyber를 포함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공통 데이터셋 표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책이 바뀌어도, 시스템 개발 요청이 필요 없습니다

새 요청이 생겨도 신청·승인·반영·증적이 하나의 화면 흐름 안에서 끝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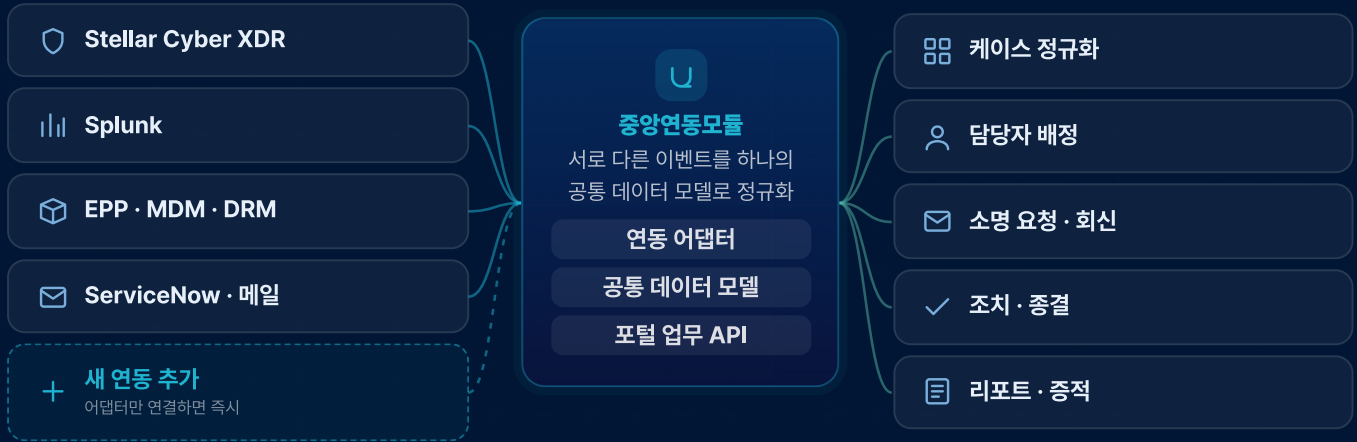
정책이 바뀌어도, 담당자가 할 일은 신청서 하나뿐입니다.

보안 시스템이 늘어나도, 연결만 하면 끝

서로 다른 보안 시스템을 공통 데이터 모델로 정규화 — 새 시스템이 들어와도 어댑터만 연결하면 포털의 확인·소명·조치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외부 보안 시스템

포털 업무 흐름



새 장비를 붙여도 고객의 운영 화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안 시스템별 알림 형식과 API 차이는 중앙연동모듈에서 흡수하고, 고객은 익숙한 포털 흐름 안에서 사건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도입 포인트는 연결보다 운영 표준화입니다.

각종 보안 시스템 데이터를 고객별 보안포탈 흐름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연동

보안 시스템 연동을 표준화

Stellar Cyber, Splunk 같은 XDR/SIEM부터 엔드포인트·DRM·ITSM까지 같은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정규화

서로 다른 이벤트 로그를 하나의 형식으로

보안 시스템마다 다른 이벤트·알림 형식을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해 포털 업무 API로 전달합니다.

분리

고객·테넌트별 데이터와 권한 분리

고객사별 데이터와 담당 범위를 분리해, 사용자는 허용된 업무 범위 안에서만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확장

시스템이 늘어나도 같은 운영 방식 유지

연동 대상이 늘어나도 포털의 확인·소명·조치 흐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처리 이력까지 남는 운영 체계

연동된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건은 담당자 배정부부터 소명 회신, 조치 결과까지 하나의 이력으로 남습니다.

중앙연동모듈

케이스 정규화

처리 이력

각종 시스템을 연동해도 같은 화면

XDR/SIEM부터 ITSM, 협업 도구까지 연동 대상이 늘어나도 고객은 항상 같은 보안포탈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각종 시스템 연동

상태 추적

고객별 권한

여러 보안 시스템 위에, 하나의 보안포탈 운영 경험을 만듭니다.

보안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LUNA SecOps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LUNA SecOps는 탐지 이후의 케이스 전환·소명 요청·조치 추적·처리 이력을 하나의 포털에서 연결합니다.



탐지 이후 처리가 제각각입니다

케이스, 담당자, 소명, 조치 상태를 같은 화면에서 이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담당자 소명이 번거롭습니다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한 토큰 링크로 소명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보안 시스템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각종 시스템을 연동해 데이터를 공통 모델에 맞춰 정리합니다.

● 도입 검토 FAQ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

기존 XDR/SIEM이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탐지 도구를 바꾸는 제품이 아닙니다. 탐지 결과를 케이스, 소명, 조치 이력으로 이어지는 업무 흐름으로 바꿉니다.

외부 담당자도 소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로그인 계정이 없어도 토큰 기반 외부 링크로 소명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서·담당자별 권한은 어떻게 분리됩니까?

담당 범위별 데이터와 화면을 분리합니다. 사용자는 허용된 업무 안에서만 현황과 요청을 확인합니다.

처리 결과를 나중에 추적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벤트별 담당자, 소명 회신, 조치 상태, 처리 이력을 남겨 사후 확인과 보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이벤트 처리, 이제 단일 운영 흐름으로 완성하세요.

우리 조직의 보안 이벤트가 어떤 데이터에서 시작되고, 누가 확인하며, 어떤 소명과 조치로 닫히는지 한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MPANY

(주)오픈소프트랩

TEL

02-6941-0501

CONTACT

010-9082-2179

MAIL

osl@opensoftlab.kr

